

인격과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악의 연대성*

홍순원 (협성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악에 대한 연구동향
- III. 악에 대한 신학적 의미규정
- IV. 선과 악의 대립과 윤리적 갈등상황
- V. 통합적 모델로서 인격과 사회구조의 연대성
- VI.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5577)

• ABSTRACT •

The Solidarity of Evil between Person and Structure

Hong, Soon-Won

This research provides ethics with the unified reflections for reality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the human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solidarity between individual and social evil. This attempt can deal more profoundly with the reality of evil which appears in human existence and social structure. This research on the solidarity between human existence and social structure clarifies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science and social science, as it were, anthropology and history. Human being and social reality are mutually dependent and regulate with each other. Evil is at once a human and a social phenomenon. The concept of solidarity can b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necessity of social reform which is to be pursued not so much as through the institutional change but through the recovery of humanity. The concept of solidarity emphasizes the interaction of the human spirit and the spirit of time. Man actualizes his evil existence through evil deeds and rediscover his identity in the evil of social structure. The consciousness of solidarity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hristians who are being isolated in the world by clinging to the privatized spirituality and conduct. A Christian comes to be responsible for himself as long as he is responsible for the society.

Key words: Evil, Solidarity, Social Structure, Human Existence, Spirit of Time, Social Science

I. 들어가는 말

역사를 돌이켜 보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악의 현실이 일회적이며, 예외적인 악의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고슬로비아의 인종청소, 9.11테러와 같은 전쟁과 대규모 살상을 통해서 끝없이 확산됨을 통하여, 우리는 악을 거부할 수 없는 실체로서 경험하고 있다. 악은 심지어 선 안에도 은폐된 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남을 돕는 일도 테러조직을 위한 것이라면 '악'으로 간주되고 악을 종식시키려는 목적 아래서 파괴적 행위는 선의 도구로 인정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개인과 사회가 점점 악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악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일상화된다는 것이다.

악의 현상을 탐구할 때, 우리는 개인의 악과 사회의 악을 구분한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악을 심리현상으로 이해하며 사회학적 차원에서는 사회현상으로 접근한다. 둘 중 어떤 형태의 악이 더 근본적인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회지향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악을 가난, 경제적 여건, 인종적, 성적 불평등, 또는 자본주의 구조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로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개인의 파괴성은 사회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집단적 악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개인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사회구조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인간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악이 실제로 존재할 찌라도, 그것은 인간 내부의 악한 본성이 외부로 표출된 결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사회구조가 갈수록 악해지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두 관점은 악의 기원과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기여하였지만 악의 현실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윤리적 차원의 논의에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였다. 두 관점의 한계는 서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완될 수 있다.

도덕적 차원에서 악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결정의 안티테제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을 규정할 때, 우리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존재와 자유로운 존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개인적 고통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인 악에 대한 논의는 결정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도덕적인 악에 대한 논의는 자유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도덕적인 악은 과거나 현재의 조건과 상관없이 도덕적 주체의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찌라도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자유는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을 선천적으로 결정된 존재로 본다면, 악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악의 문제는 인간의 자유와 연결되는 순간, 논리적 모순에 부딪힌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면 왜 그가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지가 설명될 수 없다.

악은 인간현상일 뿐 아니라 문화현상이며 그 자체로서 통진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험적 현실이다. 악의 문제는 철학, 신학,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등 거의 모든 학문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학문적 관점과 접근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다양한 방향성이 도출되기 때문에 악에 학제간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악의 현실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인격적인 악과 사회악 사이의 연대성을 분석하면서 인간학적 방법론과 사회학적 방법론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것은 인간 실존 안에서 사회구조의 원리를 읽어내고 사회구조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인간 실존의 구체적 상황과 삶의 원리를 밝혀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악의 현실을 제거하기 보다는 예방하고 억제하는 차원에서 실천적 방향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악의

문제를 인간 존재와 사회구조를 포괄하는 통전적인 주제로 규정하고 개인적인 악과 사회현실의 구조적 악 사이의 연관성을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밝혀나가게 될 것이다.

II. 악에 대한 연구동향

개인악과 사회악 사이의 우선성에 관한 논의는 프로이트(Freud) 전통과 막스(Marx)전통의 대립구조를 형성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파괴성의 내적 요소들에 더 큰 비중을 둔 반면 막스는 인간의 파괴성 자체를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조건에 기초시켰다. 생물학과 심리학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려는 욕구가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인간 안에 심겨진 본능이라고 보지만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조건화의 결과라고 본다. 전자가 귀납적 접근이라면 후자는 연역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프스 이론에 기초하여 살해된 아버지의 범을 초자아로서 내면화시키고 자연적 요구와 규범적 요구를 매개하는 자아의식을 발전시킨다. 그는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혼합된 이중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신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신을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 때문에 그는 긍정적 감정을 신을 향해 부정적 감정은 악마에게 돌림으로써 극단적인 감정의 대립이 해소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악의 범주는 죄책감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악의 근원은 성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충족시키는 무분별한 방식에 있다¹⁾. 따라서 죄의식을 통해 가능해진 악에 대한 인식은 동시에 왜곡된 선에 대한 인식이다. 결국 악의 개념은 심리학적으로 신에 대한 인간의 적대적 감정을 순화시

1) Marion Battke, *Das Böse bei Sigmund Freud und C. G. Jung*, (Düsseldorf: Patmos Verlag, 1978), 21.

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프롬(Fromm)은 프로이드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서 악의 문제를 죽음
을 향한 사랑과 생명을 향한 사랑 사이의 대립구조 속에서 이해하였다²⁾.
인간에게 악이란 생명을 사랑하려는 성향의 손상 내지는 좌절의 결과이
다. 한편 융(Jung)은 악이 초자아의 그림자라고 보았다. 그에게 악이란
선의 그림자이며 ‘자아’의 어두운 면, 곧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콤플렉스
다³⁾. 그는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가 리비도를 통하여 악으로 분출된
다고 보았다. 그는 선과 악을 형이상학적 탐구에서 독립시켜 대상적 경험
속에서 해석하였다. 선과 악은 인간 밖에 실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대
상적 경험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에게 선과 악은 논리적으로 동등한 한 쌍의
양극이다. 그는 악이 상대적인 것이며, 그 상대성은 선과 악의 양극성에
있다고 보았다.

사회생물학에서는 프로이드처럼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지만 심리적
본성 보다는 자연적 본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악의 근원을 유전자에
서 찾는다. 도킨스(Dawkins)에 따르면 인간과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타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⁴⁾. 유전자는 본질적으로 이기적 성향을 가지며
이타적 성격까지도 이기적 근원을 가진다고 보았다. 도킨스는 ‘이기적 유
전자’에서 악의 본성을 유전자의 생존방식으로 설명하였다⁵⁾. 모든 생물
체의 구조가 유전자의 명령에 기초한다고 본다면 악이라는 것도 문화적
진보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위성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생물학적 진화는

2) Erich Fromm, *Den Menschen verstehen: Psychoanalyse und Ethik*,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2004), 34.

3) 위의 글, 61.

4) Annemarie Pieper, *Gut und Böse*, (München: Verlag C.H. Beck, 1997), 24.

5) Richard Dawkins, *Das egoistische Gen*, (Berlin: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2006), 38.

문화적 진화에 선행하여 이루어졌으며, 문화적 진화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은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로렌츠(Rorenz)는 동물 종들의 행동방식을 유사성과 상이성에 근거하여 비교 행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규범은 변화시킬 수 있어도 그를 지배하는 생물학적 법칙은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을 지배하는 자연적 본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격본능인데, 그는 이것을 악의 근원이라고 규정하였다⁶⁾.

한편 사회학자들은 막스가 악의 실재를 경제적 생산 관계들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본 것처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함을 통하여 악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악은 결국 사회 구조의 억압적 질서에 기인하며, 그 악에 책임적이다⁷⁾. 이와 관련하여 선의 사회적 기능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욕망 충족을 위한 경쟁에서 적대적 관계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도덕적 보호효과에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가 존속하는 한 선과 악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그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쿠제(Marcuse)는 구조 악과의 투쟁을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폴락(Polac)도 개인의 악을 구조악의 개체적 현상으로 분석하고 사회구조의 변혁이 없는 한 악의 현실은 더욱 확산된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⁸⁾. 그는 인간의 본성이 결코 악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악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문화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개인은 천성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으며 단지 사회적 영향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사회생물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생리학적 성찰방식에 집중한

6) Annemarie Pieper, *op. cit.*, 21.

7) 위의 글, 19.

8) 위의 글, 27.

한 것과는 달리 사회심리학에서는 악의 형성과정을 자연적 본능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도 참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악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연결시켰다.

한편 악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전통은 심리학적 입장에서처럼 인간학적 차원에 기초해 있다. 니체는 선과 악의 문제를 힘의 대립관계로 이해하였는데, 그는 힘을 가진 자의 지배질서를 악으로 보고 그 지배를 견디어내는 피지배자의 질서를 선이라고 규정하였다⁹⁾. 그는 서구역사의 지배질서로서 근대를 형성해온 기독교를 악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악은 외부적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좋고 나쁨에 대한 인간의 의식과 사고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것이 현실적 경험과 연결되면서 사회화되고 역사화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사회학은 개인을 사회구조의 산물로 봄으로써 사회적 권력구조가 악을 유발시킬 찌라도 악의 행위자로서 인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배제시킨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로서 인가의 책임성의 관점에서 볼 때, 프로이드의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은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악에 대한 책임을 아들에게만 돌리고 아버지에게는 책임을 면제하여 준다. 악의 보편성 간과 또한 사회학에서는 악을 스스로 형성된 공동체의 억압적 구조에서 발견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 따라서 악을 먼저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악의 문제를 인간 안에서 찾거나 사회구조를 통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불완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는 상호

9) Friedrich Nietzsche, *Jenseits von Gut und Böse. Zur Genealogie der Moral*, (Köln: Anaconda, 2006), 21.

종속적이며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악은 인간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현상이며 그 자체로서 통전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험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간학, 사회학, 역사학 서로 독립된 학문체계가 아니다. 문화인류학, 역사인간학, 사회심리학, 사회생물학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는 것은 인간현상과 사회현상, 인간정신과 시대정신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과 역사의 악의 연대성에 관한 논의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연구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다.

III. 악에 대한 신학적 의미규정

악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전통은 선의 지평을 통하여 악을 규정하는 것이며 선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선의 왜곡으로 규정하는 방향을 설정한다. 기독교 역사에서 악에 대한 이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이해와 역사이해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따르면 악이란 창조 질서에는 없었다. 오히려 그것에서의 이탈을 의미하며, 선의 결여가 곧 악이라고 할 수 있다. 악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란 실체적 존재에 결합이 생긴 것을 악이라고 한다¹⁰⁾. 그에게 인간의 삶과 역사의 발전과정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는 선과 악의 갈등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의 본성’(natura boni)에서 악의 본질을 선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하였다¹¹⁾. 하나님은 최고선이며 악은 선의 부재 내지는 선의 결핍이다. 이러한 이해는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emanation theo-

10) Svetlana Sautner, *Das Böse bei Plotin und Augustinus*, (Norderstedt: Grin Verlag, 2010), 71.

11) Brigitte Berges, *Die Natur des Guten*, (Paderborn: Schöningh, 2010), 18.

ry)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것에 따르면 오직 일자만이 존재하며, 선한 것이고, 만물은 그로부터 유출되기 때문에 일자에 가까울수록 선한 존재이고 멀어질수록 악한 존재이다¹²⁾. 일자가 ‘완전한 존재’인 일자와 ‘완전한 무’(perfect Nothing)사이에는 존재와 비존재의 등급적인 차이만이 나타나며 만물은 일자에 가까울수록 존재하는 방향으로, 무에 가까울수록 비존재의 방향으로 규정된다¹³⁾.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신플라톤주의를 기독교 신학에 접목시켜서 일원론적 선악개념을 구성하였다. 그는 우주 안에서 나타나는 선과 악의 현상학은 실재적인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선의 완성을 통하여 악은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무’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존재에로의 잠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피조된 세계의 존재들은 최초의 질량, 형태, 질서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며, 그에 따른 결핍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본질로부터 이탈하여 비존재로 향하는 것이 피조물의 운명이며, 이러한 회귀본성 안에 악의 의미가 담겨 있다¹⁴⁾. 하지만 악의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여 선의 결핍으로 규정한 것은 현상세계에서 경험되는 악의 실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선과 악에 대한 낙관적인 일원론적 이해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수용되고 유지되어 온 이유는 선과 악을 독립적으로 대립시키는 이원론적 이해가 신정론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이원론적 선악개념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이신론에 빠지든지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의 대립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정론에 나타나는 선과 악의 문제는 신론 분 아니라 창조론으로부터 종말론, 그리고 기독교적 인간이해와 역사이해 안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신학적 문제로서 지금도

12) Annemarie Pieper, 앞의 글, 62.

13) 위의 글, 92.

14) Berges, 앞의 글, 34.

남아 있다.

개신교 신학에서 구조악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신학자는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이다. 그는 인간의 악과 사회구조의 악을 구분하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인간의 선을 향한 자유를 구속한다고 보았다¹⁵⁾. 그는 인간과 사회구조를 분리하여 인간존재는 선한 본성을 지니지만 사회구조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구조 안에서 살아간 한 결코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선한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도 구조악에 의해서 약해질 수 있다. 한 개인은 이타심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지만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는 질서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악을 해결하기 위한 양심과 도덕의 역할은 무의미하다.

니버는 각 개인들이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는 있지만, 개인이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공동체의 비도덕적 성향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¹⁶⁾. 여기서 개인은 공동체적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무나 동정심을 상쇄시키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니버는 이처럼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 공동체를 이룰 경우에는 결국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기적인 개인들과 사회 공동체의 집단이기주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니버가 인간을 본질적으로 도덕적 존재로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는 인간이 도덕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되어 있다. 한편, 그가 악의 문제에 대하여 궁극적인 대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악의 문제를 신학적 성찰의 주제로 부각시킨 것은 기독교 사회사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의 악과 사회악

15)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Eugene: Wipf & Stock Publishers, 2010), 27.

16) 위의 글, 29.

을 분리시켜 악의 현실을 운명론 내지는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니체의 입장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간은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도덕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의 악을 분석한 니체의 현실주의적 신학은 사회문제에 대한 신학적 이해지평을 확장한 공헌은 인정되어야 하며, 인간과 사회의 괴리를 드러냄으로써 인간과 교회의 윤리적 책임을 신앙의 영역 안으로 축소시키고 신앙과 현실이 이원적 역사구조를 강화시킨 결과는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근의 신학적 연구에서는 악이 인간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선과 악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절대적 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악 안에 선이 내재하고 선 안에 악이 내재한다¹⁷⁾. 세상에 선만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선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 빛과 어둠, 높음과 낮음, 크고 작음이 있듯이 선과 악에 있어서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규정한다. 천사로부터 악마가 나올 수 있듯이 선 안에 악의 씨앗 숨겨져 있다. 인간의 사고가 모든 것을 선과 악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 안에 선과 악을 만든다¹⁸⁾. 인간은 자신에게 유용하고 좋은 것을 선으로 느끼고 자신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여긴다. 악의 의미는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선을 만들어내는데 있다¹⁹⁾.

IV. 선과 악의 대립과 윤리적 갈등상황

구약성서에서는 선과 악의 기원을 선악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17) Gehard Stagnun, *Wenn Gott gut ist*, (München: DTV, 2006), 108.

18) 위의 글, 113.

19) 위의 글, 109.

창조질서 안에서 선과악은 단지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하였지만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현실성이 되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창조질서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왜곡시키며 역사의 내재적 원리가 되었다. 역사 안에서 선과 악의 갈등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역사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다. 여기서 선은 마치 악의 부정을 통하여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악의 반대편에 존재하지 않는다. 타락이 창조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선을 통하여 자신과 역사의 악의 연대성을 인식한다.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선은 하나님의 역사설정 행위로서 창조를 의미하며, 악은 창조질서에 대립하는 반창조적 질서로서 혼돈을 의미한다. 선은 악과의 갈등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설정 행위에 기초하는 원초적 현실성이다. 인간이 인식하는 선과 악의 갈등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역사 사이의 대립에 기초하는 이차적인 현상이다. 구원사적으로도 악이 선과 동등한 성격을 가지는 대립적 요소라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인간과 그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한편 악이 선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한편, 변증법적으로 규정되는 악의 원리가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역사의 근본적인 갈등에 대한 인간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하여 역사 안에 나타나는 선과 악의 갈등을 작 자신의 것으로 경험한다. 역사 안에 내재하는 악은 인간의 역사성과 동떨어진 상대적으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과 역사의 연대성 속에서 현실화된다. 그러므로 악은 선과 악의 역사적 대립 속에서 인간의 구체적 상황 속으로 들어온다. 선과 악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가 아니라 근원적

이고 선제적인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악의 연대성을 통한 인간과 현실이해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교회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근거가 되며, 기독교 사회윤리의 궁극적 과제인 교회와 사회의 유기적 상관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창조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주, 인간, 세상의 관계성은 창조질서의 근원적 원리이며 그것의 회복이야말로 인간과 역사의 정체성의 궁극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현실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책임이 강조되며 진정한 사회개혁과 역사의 변혁은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악의 연대성에 대한 연구는 악의 본질과 원인을 밝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의 현실을 진단하고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악을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인간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책임윤리적 차원을 형성한다.

선과 악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은 인간이 윤리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역사적 현실에 그대로 투영된다. 역사적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과 악의 갈등은 인간의 윤리적 관계에 작용한다. 그 갈등은 이상적인 행동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갈등상황을 형성한다. 역사 안에서 창조주의 활동과 인간과 역사의 악 사이의 대립은 역사가 지속되는 한 해소될 수 없는 근원적 갈등을 드러낸다. 윤리적 갈등상황은 단지 결단과 행동의 문제 이전에 악이 개인 뿐 아니라 역사의 규범적 원리라는 문제를 지적한다. 인간과 그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은 해소될 수 없으며, 그 상황 속에서 악은 끊임없이 현실화된다. 결국 선과 악의 역사적 대립은 인간과 역사의 연대성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

악의 연대성은 구체적인 윤리적 현실 속에서 한계 상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윤리적 결단과 행동이전에 윤리적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윤리적 돌파구도 존재하지 않는 한계상황은 역

사 안에서 인간의 결단과 행동이 악이라는 구조적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²⁰⁾. 악은 단순히 인간의 심리현상이거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창조질서 전체의 근원적 현상이다.

V. 통합적 모델로서 인격과 사회구조의 연대성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악은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성서는 악의 기원을 설명하기보다 인간의 죄와 연관하여 악의 현실을 해석한다. 악은 태초부터 무질서와 혼돈의 개념을 통하여 반창조적인 원리로서 존재하며 창조를 통해 만물이 형상화된 것처럼 악의 존재도 반창조적인 무질서와 혼돈으로서 형상화된다. 악은 원죄를 통하여 인간 안에서 실체를 드러내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창조질서 전체로 확산된다.

창조기사에서 보면 악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의 현실성은 인간을 통하여 창조질서의 구성적 원리가 되었다.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폭력이 폭력을 통하여 제거되고 피가 피를 부르는 파괴와 보복, 그리고 응징의 원리가 역사를 유지시켜 나가는 지배적 원리가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간의 악이 인간 안에만 머무르는 내재적 원리로서만 작용하지 않고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이 지배질서가 되는지를 설명한다. 역사는 타락과 심판 사이의 시간으로서 노아의 시간이며,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선 악이 인간과 역사의 구성적 원리로서 작용한다²¹⁾. 타락 이전의 시간은 선과 악이 현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존재하였으며 심판이후에는 선과악의 갈등이 악의 소멸과 궁극적인 선의 완성으로 회복된다.

2차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신학적 흐름에서는 악의 개념을 탈신학화하

20) Alfred Bentum, *Helmut Thielickes Theologie der Grenzsituation*, (Paderborn: Schöningh, 1965), 34.

21) Helmut Thielicke, *Kirche und Öffentlichkeit*, (Tübingen, J.C.B. Mohr, 1967), 23.

여 개인적 불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학적 의미로 확대시키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퀴네스(Künneht), 티리케(Thielicke)와 같은 사회윤리학자들은 기독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악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악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천적 이해를 추구하려는 시도이다. 티리케는 성서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 시도를 통하여 사회악의 문제를 조망한다. 그는 노아의 이야기를 사회악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한다.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 안에 활동하는 악이 역사의 지배적 원리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한편, 현실 속에서 악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창조행위는 궁극적인 선으로서 악의 현실을 드러내고 제어하는 시금석이 되며, 그 행위 앞에서 인간과 역사의 악의 연대성이 드러난다²²⁾. 타락 이전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아래서 비로소 인간과 역사 안에 내재하는 악이 드러난다. 그것은 인간이 역사 안에서 창조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증명된다. 인격과 사회구조의 이분법적 악 이해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회현실 속에서 실천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과 사회구조가 악의 연대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란 곧 인간의 역사성과 분리될 수 없다. 창조행위로서 하나님의 역사 설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인간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성을 떠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악에 대한 적절하고 통전적인 이해를 얻기 위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역사라는 두 차원을 연결시켜야만 한다. 그것은 인간과 역사 안에 나타나는 악의 연대성을 규명하는 해석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통한 인간과 역사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자연과학적 관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22) 위의 글, 29.

형성한다. 창조윤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자의식과 역사의식을 피조성에 기초시킨다. 여기서 인간은 이중적 실존방식을 경험한다.

인간과 역사 안에 나타나는 악의 문제는 창조의 말씀에 부딪치는 인간 실존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하여 드러난다. 인간은 무시간적 존재가 아니며, 그가 역사적 존재로서 역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한, 필연적으로 역사적 현실과 사회구조의 구성적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역사설정의 근원적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역사를 창조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해석하고 규정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키고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역사가 되도록 인간을 역사의 주체로 세운다. 여기서 역사란 다름 아닌 인간의 역사성을 통해서 규정된다. 삶과 역사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함으로써 역사의 전개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사로서 경험한다. 여기서 역사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역사라는 두 차원을 형성한다.

이러한 역사인간학적 관점은 사회악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방관자가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책임적 주체임을 자각하게 한다. 그렇다면 라인홀트 니버(Reinhold Niebuhr)의 주장처럼 인간은 도덕적인데 사회구조가 비도덕적이어서 선을 실현할 수 없다²³⁾거나 도킨스(Dawkins)처럼 사회구조는 선한테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선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입장보다는 인간과 사회가 악의 연대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이 악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²⁴⁾.

23) Niebuhr, 앞의 글, 21f.

24) Dawkins, 앞의 글, 11f.

인간과 역사의 연대성은 선과 악 사이에서 결단해야 하는 보편상황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역사 안에는 내재하지 않으며 선과 악이 모호하게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악한 수단이 사용되기도 하고 선한 수단이 악한 목적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과 역사의 연대성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실존과 역사구조에 부딪치면서 나타나는 갈등은 윤리적 한계상황을 형성하는데, 그 안에서는 악과 악 사이의 불가피한 결단이 요구된다. 사회구조 속에서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규범과 상황의 대립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구조가 그 명령에 낮설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윤리적 한계상황은 어떠한 윤리적 결단과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다²⁵⁾. 한계상황 안에서 인간의 갈등은 곧 역사구조의 갈등을 투영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경우에서처럼 선택이 불가피하지만, 또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한계상황 안에서의 결단은 선과 선, 선과 악 사이에서의 결단이 아니라 악과 악 사이에서의 결단이다. 한계상황 안에서 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악이 필요하다. 핵평화의 문제에서처럼 평화를 통하여 폭력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폭력을 통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현실이 특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²⁶⁾.

기독교 윤리가 악의 문제를 인간과 사회현실을 아우르는 통전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근거는 인간과 역사의 연대성에 있다. 인간은 단순히 역사의 자기 전개과정에 던져진 존재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역사를 책임적으로 형성하며 유지하는 주체이다. 둘 사이의 연대성은 인간의 자의식과 사회구조 안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25) Helmut Thielicke, *Theologische Ethik, Bd.III/1*, (Tübingen: J.C.B. Mohr, 1978), 147f.

26) Thomas Bakkevig, *Ordnungstheologie und Atomwaffen*, (Paderborn: Qwellverlag, 1989), 32.

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 말씀은 인간과 역사를 창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들의 본질과 의미를 규정하는 시금석이 된다. 예를 들어 산상설교의 원수사랑의 명령은 이윤추구와 경쟁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경제적 인간과 경제질서가 창조질서로부터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경제질서를 움직이는 자율성은 윤리적 의미에서 볼 때, 관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원리이며, 인간과 역사의 연대성을 드러내는 규범적 원리이다²⁷⁾. 산상설교의 원수사랑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존재하려고 하는 인간과 역사를 지적한다. 그 명령 아래서 인간은 역사로부터 단절될 수 없으며, 역사가 실존의 외부적 형식임을 발견한다. 역사는 곧 인간의 몸이다²⁸⁾. 인간은 역사 안에 내재하는 악의 원리 속으로 우연히 던져져서 자신을 지배하는 악의 구조를 발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악한 존재를 역사적 삶을 통하여 현실화한다. 악한 존재로서 인간은 역사적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타락한 역사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은 타락한 인간 실존의 장소일 뿐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의 타락을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실존의 형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역사의 타락한 연대성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길을 예증한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역사의 연대성을 인식하는 것은 이미 은혜의 성격을 가진다²⁹⁾. 여기서 은혜는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한 수동적 대상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연대성을 해체하고 하나님과의 긍정적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

27) Helmut Thielicke, *Geschichte und Existenz*,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64), 61.

28) 위의 글, 62.

29) 위의 글, 142.

을 드러냄으로써 심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계상황의 사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회현실의 이율배반적 성격은 사회의 구조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조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인간이 한계상황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은 악이 인간 내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원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구조적 악이 인간의 악의 외부적 실존형식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악의 현실 속에서 인간과 사회구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인간과 사회구조의 연대성을 통하여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드러난다. 사회구조의 변화가 통해서 인간 본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이 변화될 때, 사회구조도 본질적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한 연구는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일 뿐 아니라 현실해석학적 작업이다. 현실은 인간 실존의 외부적 형식이며 인간실존의 한계상황은 현실 안에 내재하는 선과 악의 근원적 갈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겪는 윤리적 한계는 사회현실 안에 내재하는 구조적 한계와 분리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연대성에 대한 연구는 악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결정적인 대안이 아니라 악의 현실에 대한 책임적 인식과 그 현실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논의를 심화시킴으로써 악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VI. 나가는 말

악의 문제를 인간 안에서 찾거나 사회구조를 통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불완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는 상호종속적이며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악은 인간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현상이며 그 자체로서 통진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험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간학, 사회학, 역사학 서로 독립된 학

문체계가 아니다. 문화인류학, 역사인간학, 사회심리학, 사회생물학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는 것은 인간현상과 사회현상, 인간정신과 시대정신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과 역사의 악의 연대성에 관한 논의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연구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다. 악의 문제는 인문사회과학의 거의 전 분야와 관련된 주제이며 각 분야들 사이의 상호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서로 대립적 관점에 있는 입장들을 서로 비교, 분석, 비판함으로써 간학문적, 통합적 소통을 위한 실천적 방향제시를 위한 가능할 수 있다.

인격과 사회구조의 악의 연대성은 인간정신과 시대정신의 연관성을 드러냄으로써 악의 현실에 대한 책임의 연대성을 인식시킨다. 인간 삶의 구체적인 상황이 역사구조의 모순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현상을 통하여 인간 실존의 모순을 읽어내고 개인의 악을 통하여 사회악이 확산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악의 문제를 인간과 사회현실 안에서 함께 발견하려는 시도는 사회개혁을 제도적 차원만이 아닌 인성회복을 통하여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사회악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벗어나서 그 악의 현실에 대한 책임성을 의식하고 수동적으로 악을 제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실현하는 책임적 자아를 회복시킨다. 선과 악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단지 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수동적, 소극적 악 이해는 악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감각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로서 개인적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이 고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을 향한 궁극적 결단과 실천을 위한 윤리적 책임의식을 통하여 인간회복과 사회구조 개혁이 요청된다.

연대성 개념은 인간정신과 시대정신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개혁은 제도적 차원만이 아닌 인간 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에리히 프롬이 강조하였듯이 제도의 개혁은 의식의 개혁에 뒤 따르는 결과이다. 혁명의 정체성은 사회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 인간의 의식에 달려 있다.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개혁이 제도적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정치질서를 구성하는 것은 정치적 인간이며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것은 경제적 인간이다. 연대성 개념에 기초하여 기독교 사회윤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사회구조의 모순을 개혁하기 이전에 먼저 정치적 인간, 경제적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결코 제도적 차원에서 세대화될 수도 없으며 세상을 교회화할 수도 없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타락과 심판 사이의 시간 속에서도 둘 사이의 구분은 모호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없듯이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반창조적 혼돈의 질서 안에서 창조주의 활동 사이의 구분은 모호해질 수 없다.

사회구조는 인간의 결단과 행동으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이며 독립된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존재방식이며 유지수단이다. 루터가 “인격이 행위를 만든다”라고 강조하였던 것처럼 사회구조는 인간의 행위의 결과물이며 그 행위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외부적 형식이다. 인간은 악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악한 행위를 통하여 표현하며 사회의 구조적 악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재발견한다. 인간의 존재와 행위, 그리고 구조는 악의 연대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악에 대한 무책임함 방관자가 아니라 그 구조를 자신의 몸(sarx)으로서 인식한다. 이러한 연대성 의식은 개인화된 영성과 행위에 집착하여 세상 안에서 고립되어가는 크리스천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적인 것처럼 실존의 외부적 형식인 사회 구조에 대하여 책임적이다.

참고문헌

- 니체, 프리드리히, 강영계 옮김, 『선과 악의 저편: 미래 철학의 서곡』,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데겐, 톨프, 박규호 옮김, 『악의 종말』, 서울: 현문미디어, 2001.
- 러셀, 제프리 버튼, 김영범 옮김, 『메피스토펠레스: 근대 세계의 악마』, 서울: 르네상스, 2006.
- 러셀, 제프리 버튼, 최은석 옮김, 『악마의 문화사』, 서울: 황금가지, 2002.
- 리피르, 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박주영, 『악이란 무엇인가』, 서울: 누멘, 2012.
- 배철러, 스티븐, 박용철 옮김, 『선과 악의 얼굴: 인문학과 과학의 눈을 통해 보는 선과 악의 진실』, 서울: 소담출판사, 2012.
- 베르트, 존, 정영문 옮김, 『선악의 정원』, 서울: 황금나침반, 2006.
- 부케티즈, 프란츠, 엄정용 옮김, 『왜 우리는 악에 끌리는가』, 서울: 21세기북스, 2009.
- 샌포드, 존, 심상영 옮김, 『융심리학, 악, 그림자』, 서울: 한국심층심리연구소, 2010.
- 아렌트, 한나, 김선옥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파주: 한길사, 2006.
- 오클리, 바버라, 이종삼 옮김, 『나쁜 유전자: 왜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왜 그들은 성공하는가?』, 파주: 살림출판사, 2008.
- 쿠퍼, 테리, 전요섭 옮김, 『기독교 상담에서 본 악』,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캐러스, 폴, 이경덕 옮김, 『만들어진 악마: 신화와 종교속의 악마 이미지』, 서울: 소이연, 2011.
- 피퍼, 안네마리, 이재황 옮김, 『선과 악』, 서울: 이끌리오, 2002.
- 할러, 라인하르트, 신혜원 옮김, 『아주 정상적인 악』, 서울: 지식의 숲, 2012.
- 히, 존, 김장생 옮김, 『신과 인간 그리고 악의 종교 철학적 이해: 아우구스티누스에 서 플라톤까지 신정론의 역사』, 파주: 열린책들, 2007.
- Anderson, Sharon, *Kant's anatomy of evi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Bakkevig, Thomas, *Ordnungstheologie und Atomwaffen*, Paderborn: Schöningh, 1989.
- Battke, Marion, *Das Böse bei Sigmund Freud und C. G. Jung*, Düsseldorf: Patmos Verlag, 1978.
- Bentum, Alfred, *Helmut Thielicke's Theologie der Grenzsituation*, Paderborn: Schöningh, 1965.
- Berges, Brigitte, *Die Natur des Guten*, Paderborn: Schöningh, 2010.
- Carruthers, Bruce, *Economy, society: markets, meanings, and social structure*, London : SAGE, 2013.
- Corstjens, Marcel, "The Power of Evil: The Damage of Negative Social Media Strongly Outweigh Positive Contribution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52(2012), 433-449.
- Dawkins, Richard, *Das egoistische Gen*, Berlin: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2006.
- Eagleton, Terry, *On evil*,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0.
- Eckel, David, *Deliver us from evil*, New York: Continuum, 2008.
- Fromm, Erich, *Den Menschen verstehen: Psychoanalyse und Ethik*,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2004.
- Gaita, Raimond, *Good and evil : an absolute conception*, London: Routledge, 2004.
- Gleeson, Andrew, *A frightening love: recasting the problem of evi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 Haddock, Bruce, *Evil in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1.
- Hitlin, Steven, *Moral selves, evil selves: the social psychology of conscience*, New York: Macmillan, 2008.
- Hirvonen, Ari, *Law and evil : philosophy, politics, psychoanalysis*, New York: Routledge, 2010.
- Jeffery, Renée, *Evil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 suffering in an age of terro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Jensen, Steven, *Good & evil actions: a journey through Saint Thomas Aquinas*,

-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0.
- Lobel, Diana, *The quest for God and the good: world philosophy as a living experi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 Madore, Joël, *Difficult freedom and radical evil in Kant: deceiving reason*, New York: Continuum, 2011.
- Mikulincer, Mario, *The social psychology of morality: exploring the causes of good and evil*,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 Miller, Arthur, *The social psychology of good and evil*, New York : Guilford Press, 2004.
- Morrow, Lance, *Evil: an investigation*, New York: Basic Books, 2003.
- Neuhouser, Frederick, *Rousseau's theodicy of self-love : evil, rationality, and the drive for recogn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Eugene: Wipf & Stock Publishers, 2010.
- Nietzsche, Friedrich, *Jenseits von Gut und Böse. Zur Genealogie der Moral*, Köln: Anaconda, 2006.
- Parry, John, *Evil, law and the state: perspectives on state power and violence*, New York : Rodopi, 2006.
- Pieper, Annemarie, *Gut und Böse*, München: Verlag C.H. Beck, 2008.
- Salomon, Michael, *Jenseits von Gut und Böse*, München: Piper Verlag, 2013.
- Scarre, Geoffrey, *After evil: responding to wrongdoing*, Aldershot: Ashgate, 2004.
- Sautner, Swetlana, *Das Böse bei Plotin und Augustinus*, Norderstedt: Grin Verlag, 2010.
- Staguhn, Gerhard, *Wenn Gott gut ist, warum gibt es dann das Böse in der Welt?*, München: Deutsche Taschenbuch Verlag, 2011.
- Staub, Ervin, *The psychology of good and evil : why children, adults, and groups help and harm ot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Sedlacek, Tomas, *Economics of good and evil : the quest for economic mean-*

- ing from Gilgamesh to Wall Stre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Tanner, Michael, *Beyond good and evil : prelude to a philosophy of the future*, London : Penguin Books, 1990.
- Thielicke, Helmut, *Kirche und Öffentlichkeit*, Tübingen, J.C.B. Mohr, 1967.
- Thielicke, Helmut, *Theologische Ethik, Bd.II/1*, Tübingen: J.C.B. Mohr, 1978.
- Thielicke, Helmut, *Geschichte und Existenz*,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64.
- Vetlesen, Arne, *Evil and human agency: understanding collective evildo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Waller, James, *Becoming evil : how ordinary people commit genocide and mass killing*,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Weeks, Jeffrey, *The Lesser evil and the greater good : the theory and politics of social diversity*, MA : Paul and Co., 1994.
- Woodiwiss, Anthony, "Making the sociology of human rights more socio-logical", *Development and society*, 40(2010), pp.117-138.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0일

심사개시일: 2015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4일

• 국 문 초 록 •

악에 대한 윤리적 탐구는 윤리학에 악의 현실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인문학 안에서의 학제간 연구를 위해서 기여하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의 목표는 개인의 악과 사회악 사이의 연대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인간 실존과 사회구조 안에 나타나는 악의 현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인간 실존과 사회구조의 연대성에 대한 연구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다시 말해서, 인간학과 역사학의 연관성을 밝혀준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성과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인간실존이 겪는 선과 악의 갈등은 사회 현실 안에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과 분리될 수 없다. 인간과 사회 현실은 상호 종속적이며 서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악은 인간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현상이며 통전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험적 현실이다. 연대성 개념은 사회 개혁을 제도적 차원만이 아닌 인성회복을 통하여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드러낸다. 연대성 개념은 인간정신과 시대정신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개혁은 제도적 차원만이 아닌 인간 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제도의 개혁은 인간의 개혁에 뒤따르는 결과이다. 인간은 자신의 악한 실존을 악한 행위를 통하여 표현하며 사회의 구조적 악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한다. 연대성 의식은 개인화된 영성과 행위에 집착하여 세상 안에서 고립되어가는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대하여 책임적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책임적이 된다.

주제어: 악, 연대성, 사회구조, 인간 실존, 시대정신, 사회과학
